

『201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논술고사

기출문제, 출제의도 및 해설

2014. 11. 22(토) 오후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논 술 고 사

한국외국어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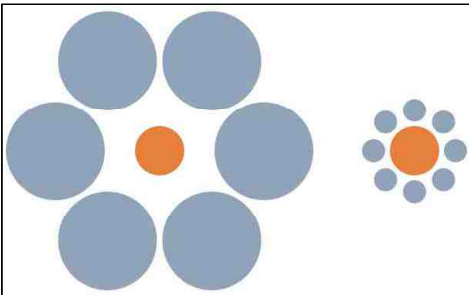
고사장번호() 지원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유 의 사 항>

1. 시험시간은 120분임.
2. 반드시 문항별 지정된 작성영역에 답안을 기재할 것.
3. 답안의 분량을 지킬 것(띄어쓰기 포함).
4. 자신을 드러내는 표시를 하지 말 것.
5. 제목을 쓰지 말 것.
6. 답안 작성은 검정색 펜만을 사용할 것.

I.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료 1>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Hermann Ebbinghaus)는 원을 통해 인간의 착시 현상을 조명하였다. 주어진 그림은 동일한 크기의 원이라도 주변을 둘러싼 다른 원의 크기에 따라 그 크기가 다르게 감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게슈탈트 심리학(Gestalt Psychology)에 따르면 인간의 인지과정은 순수 논리나 계산에 의한 추리방식과는 다르다. 인간은 객관적인 논리에 의해서라기보다 주변상황이나 세상사와 같은 사전지식에 근거해

하향식으로(top-down) 사물이나 현상을 수용하여 창의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제해결에는 각 요소에 하나씩 집중하는 것보다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독일의 심리학자 볼프강 쾰러(Wolfgang Köhler)는 하향식 사고방식에 결정적 열쇠가 되는 통찰(Insight)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논한 바 있다. 쾰러는 자신이 설계한 실험에서 철장 안 침팬지의 행동을 관찰했다. 철장 속 천장에는 밧줄로 바나나를 매달아 놓고 바닥에는 몇 개의 상자를 여기저기 흩어 놓았다. 침팬지는 바나나를 따기 위해 갖은 애를 써보다가 잠시 행동을 멈추고 상황을 살핀 뒤, 한쪽 구석에 놓인 상자를 보고는 그것들을 옮겨 차례로 쌓아 올린 뒤 결국 바나나를 손에 넣었다. 이 실험 결과를 보면 바나나와 상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개별적인 요소들처럼 보이지만 침팬지는 이들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성립시켰다. 쾰러는 이 실험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침팬지가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침팬지는 바로 이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쾰러는 이것을 통찰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급속도로 변모하는 현대사회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수많은 대상과 사태들에 둘러싸여 있다. 이때 통찰력의 부재는 이러한 파편들에 대처하는 사고의 효율성을 현저히 저하시키고 만다. 개별 사실들이 그럴듯한 즉 유의미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전체에서 부분으로 상황 고유의 관점에서 이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어느 순간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해결의 열쇠를 찾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외적인 세계의 객관적 사실들에 앞서 이를 조망할 수 있는 사전지식과 경험, 주어진 상황과 목적에 맞는 통찰이야말로 창의적이며 발전적인 결과로 이끄는 지름길이 된다.

Wolfgang Köhler, *Die Aufgabe der Gestaltpsychologie* 의

<자료 2>

Social stereotypes are often formed initially from specific experiences or from observations of one or more individuals. These specific impressions become a stereotype when this information is then generalized to apply to all members of a group, regardless of circumstances. This creates difficulties when circumstances change but the stereotype does not, or when a stereotype is used as a substitute for gathering accurate information about a person. For example, a friend of mine once reported an experience that his 6-year-old son had at school. The teacher had asked the children to draw a picture of their fathers relaxing. When the teacher saw the boy drawing a picture of a man chopping wood, she said, "No, I said draw him relaxing." Bursting into tears, the 6-year-old exclaimed, "But my daddy does chop wood to relax!" In fact, his father's work involved sitting at a desk all day long. The teacher's stereotype, not the boy's drawing, was the problem. Stereotypes, as top-down mental schemas*, can lead us to prejudge others—and all schemas carry this risk of distorting reality.

The likelihood that we will recognize such distortions is reduced by a phenomenon called confirmation bias**. Generally, we tend to focus on information that confirms our beliefs and ignore potentially contradictory information. Ironically, the more confident we are in our beliefs, the more likely is the danger of distortion, because we are less likely to look for information that might reveal our errors. Thus, a doctor with 30 years of experience is less likely to recognize when he has made a diagnostic error than a newly-graduated intern—since greater experience instills greater confidence.

* schema: 도식(圖式)

** confirmation bias: 확증편향(確證偏向)

Glassman E. William, *Approaches to Psychology*

[문제 1] <자료 1>과 <자료 2>의 요지를 각각 설명하시오. (200자 내외, 100점)

[문제 2] <자료 1>의 관점에서 <자료 2>가 지적한 한계를 논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 뒷면에 계속 >

II.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료 3>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기대]										
교육목표	<교사>			<학부모>			<학생>			(단위: %)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기본 지식	39.7	37.3	36.6	54.8	58.1	56.1	49.5	35.2	22.9	
도덕성	53.0	54.7	56.9	32.6	30.5	30.8	23.7	20.5	14.5	
개성과 창조성	5.9	6.6	3.4	10.4	9.4	9.3	17.7	32.1	42.9	
기타	1.4	1.4	3.1	2.2	2.0	3.8	9.1	12.2	19.7	

※ 9개 집단별 표본 크기는 동일함. 이은주, 「통계, 학교를 말한다」

<자료 4>

“선생님 서화는 예(藝)입니까, 법(法)입니까, 도(道)입니까?” / “도(道)다.”

“그럼 서예(書藝)라든가 서법(書法)이란 말은 왜 있습니까?”

“예는 도의 향이며, 법은 도의 옷이다. 도가 없으면 예도 법도 없다.”

“예가 지극하면 도에 이룬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는 도의 향이 아니라 도에 이르는 문이 아니겠습니까?”

“장인(匠人)들이 하는 소리다. 무엇이든 항상 도 안에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글씨며 그림을 배우는 일도 먼저 몸과 마음을 닦는 일이겠군요?”

“그렇다. 그래서 왕우군(王右軍)은 비인부전(非人不傳)이란 말을 했다. 너도 이제 그 뜻을 알겠느냐?”

이미 육순에 접어들어 늙음의 기색이 완연한 석담 선생은 거기서 문득 밝은 얼굴이 되어 일생을 불안하게 여겨 오던 제자의 얼굴을 살폈다. 그러나 고죽은 끝내 그의 기대를 채워 주지 않았다.

“먼저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면 이제 예닐곱 살 난 학생들에게 붓을 쥐여 자획을 그리게 하는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만약 글씨에 도가 앞선다면 죽기 전에 붓을 잡을 수 있는 이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기예를 닦으면서 도가 아우르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평생 기예에 머물러 있으면 예능이 되고, 도로 한 발짝 나가게 되면 예술이 되고, 혼연히 합일되면 예도가 된다.”

“그것은 예가 먼저고 도가 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도를 앞세워 예기(藝氣)를 억압하는 것은 수레를 소 앞에 다 묶는 격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석담 문하에 든 직후부터 반생에 이르는 고죽의 항변이기도 했다. 그에 대한 석담 선생의 반응도 날카로웠다. 그를 받아들일 때부터의 불안이 결국 적중하고 만 것 같은 느낌 때문이었으리라.

“이놈, 네 부족한 서권기(書卷氣)와 문자향(文字香)을 애써 채우려 들지는 않고 도리어 요망스러운 말로 얼버무리려 하느냐? 학문은 도에 이르는 길이다. 그런데 너는 경서(經書)에도 뜻이 없었고, 사장(詞章)도 즐거워하지 않았다. 오직 붓끝과 손목만 연마하여 선인들의 오묘한 경지를 자못 여실하게 시늉하고 있으니 어찌 천예(賤藝)와 다름이 있겠는가? 그래 놓고도 이제 와서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앞사람의 드높은 정신의 경지를 평하러들 다니 뻔뻔스러운 놈.”

* 왕우군(王右軍): 서성(書聖)으로 일컬어지는 중국 진나라의 서예가 왕희지를 말함.
 * 비인부전(非人不傳):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면 가르치지 않는다는 뜻.
 * 서권기(書卷氣)와 문자향(文字香): 책을 많이 읽고 교양을 쌓으면 몸에서 책의 기운이 풍기고 문자의 향기가 남을 뜻함.
 * 사장(詞章): 시가와 문장을 아울러 이르는 말.

이문열, 「금시조」

<자료 5>

(가) 언어학자들은 세계에 존재하는 많은 문자들 중에서 한글이 남다른 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한다. 이를테면 문자 창제의 과정과 원리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글이 유일하다. 현재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문자는 이미 존재하는 문자를 모방하거나 변형하여 만들어졌다. 그렇지만 한글 자음의 기본자는 소리 내는 데 관여하는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발음 작용을 본떠 아음(牙音, 어금닛소리), 설음(舌音, 혀소리), 순음(脣音, 입술소리), 치음(齒音, 잇소리), 후음(喉音, 목구멍소리)에 해당하는 글자로 만들었다. 모음은 우주 만물의 기본이 되는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각각 본떠 만들었고, 하늘은 둥글고 [·], 땅은 평평하며 [-], 사람은 그 가운데 서 있는 모양[]으로 나타냈다. 이렇게 하여 기본 모음 세 자를 만든 다음, 이들을 결합하거나 획을 더하는 방법으로 모음 열한 자를 만들었다.

(나) 한글의 또 다른 특성은 창제자가 각각의 소리에 대응하여 글자를 만든 후 그것을 조합하여 개별성을 유지하면서도 통합성을 발휘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첫소리, 가운데소리, 끝소리를 자음과 모음으로 결합하여 음절을 만들고 하나로 발음하도록 하였다. 통합성은 애민(愛民)이라는 창제자의 철학, 당대의 주류 학문인 성리학과 음양오행 사상까지 창제에 반영한 데에서도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의 음운학 이론서는 물론이고 몽골, 여진, 일본 등의 문자 관련 자료를 참고하고 종합하여 우리말에 맞는 문자를 만든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

OO출판사, 고등학교 『국어』

[문제 3] <자료 3>과 <자료 4>를 가치관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시오. (400자 내외, 180점)

[문제 4] <자료 3>의 설문조사 결과 전반에 대해 <자료 5-가>의 주된 가치에 입각하여 해석한 후, <자료 5-나>의 주제에 근거하여 학교 교육목표의 바람직한 방향을 다수 의견 중시의 원칙하에 초·중·고별로 추론해 보시오. (500자 내외, 210점)